

癸巳, 신 새벽 풍경

東甫 김길웅

시인·수필가
제주사회복지신문 편집위원
2012 제주도 문화상 수상

앞마당 빈가지 끝에
빛 한 줄기 매달려 있다

이슬 속을 굴러 조흔조흔 내려다
새의 등을 톹 친다
새 깨어나 살은 뜨고 나앉더니
습기에 머물던 시간의 귀퉁이를 날 선
부리로 쫓다, 쫓고 또 쫓다

이어지는 새의 날갯짓
여각거슴츠레 눈 감고 있는
불 붙고 켜는 동편 하늘을 어루만진다

어디서 무엇이 나부끼는 소리
고름밤 설한풍에 웅웅고렸던 이따리 하나
나뭇나뭇 춤추기 시작한다

빛 무리 외곽 눈앞으로 내리고
어떤 손이 무쇠 고리를 당기는 순간
싱고려운 날빛이 폭포수처럼
섬 안으로 쏟아진다

언 땅에서 애벌레 한 마리 꿈틀대고
이 신 새벽
모든 눈들이 형형하다.



올해 태어난 셋째 이후 자녀 월 5만원 양육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이나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12개월간 매달 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셋째 이후 자녀 양육지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신생아 모두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세제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생필품 구입 및 학원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다.

지면소개

종합 2·3면
올해부터 장애인등록대상 확대
시설 탐방·변일

사회복지소식 4·5면
실버스타연극단 순회 공연
서장복, 카페 '휴마루' 오픈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특집 7면
장애인 자립생활기관 구축 실태조사 결과

기획 8면
이웃사랑 자원봉사-변명호씨
시창의 식품가부 푸드마켓에 온정 잇따라

2013 계사년(癸巳年)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일 시 : 2013. 1. 15(화) 11:00~13: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2층) 삼다수홀
- 행사내용 :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자 시상
제주 사회복지 1호 시설' 현판 전달식
참가자 교례
행운권 추첨
오찬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올해부터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

호흡기·간·요루·간질 등 등급기준 완화

4700명 신규등록 4만2000명 등급상향 예상

2013년부터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완화,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정, 1월 15일까지 입법에 고한다 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장애인에 게 중한 합병증이 있으면 간장애 3급을,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을 각각 인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간질장애 최저(5급) 기준을 현행(진단 후 3년, 발작 지속 6개월)보다 완화해 '진단 후 2년, 발작 지속 3개월'로 바

뀐다.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하면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3급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방광에 구멍을 내 오줌을 배출하는 환자는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대변주머니)를 설치한 환자의 장애등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이 있으면 등급을 더 높일 수도 있게 했다. 이는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해 현행 5급 환자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3급까지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적장애 판정 기준으로는 지능지수만 반영하고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제외키로 했다.

청각장애 판정의 경우 너무 어리거나 지적 장애가 있어 청력검사가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은 현재 3급 이하 등급만 받을 수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청력장애 최고 등급인 2급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무릎관절 동요검사,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은 대형 병원 외에 소규모 병원에서도 손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4700여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장애인 중 4만2000여명의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관리 성과보고서에 의한 정성평가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등 지자체 운영 실정에 대한 13개의 지표 평가에서 지자체 운영관리, 사업실적, 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제주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 12개 사업에 46억원을 들여 월 평균 845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708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사회서비스 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도민 바우처 홍보는 물론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급자 중 고위험군 409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급여일수는 8만5000일, 진료비는 6억43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료수급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면서 예산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만덕 나눔 쌀 만섬 쌓기

나눔과 베품을 실천한 조선 시대 의인 '김만덕'(1739~1812년) 서거 200주기를 맞아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 행사가 12월 22일 오후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서 열렸다.

나눔과 베품을 실천한 조선 시대 의인 '김만덕'(1739~1812년) 서거 200주기를 맞아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 행사가 12월 22일 오후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서 열렸다.

읍·면·동 복지위원 구성 완료

제주시, 사회복지사 등 213명 위촉

제주시는 지역 복지자원 발굴과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복지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에 구성된 읍·면·동 복지위원은 모두 213명으로 기존 2명이던 읍·면·동 별 복지위원이 5~15명으로 확대됐다.

성별로는 남자 101명, 여자 112명이며, 직능별로는 사회복지사 47명, 자영업 및 주부 34명, 주민자치위원 26명, 통·반장 16명, 장애인지원 협의회원 11명, 새마을부녀회원 10명, 적십자회원 6명, 청소년지도위원 5명, 기타 사회단체회원 28명, 기타 30명 등이다.

이들 복지위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조례 등 법규로 설치, 위촉된 각종 단체의 장은 제외됐다.

복지위원은 저소득 주민과 아동, 노인, 장애인, 모

자가족, 부자가족, 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의 권익 보호와 상담, 사회복지 관련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급식비와 교통비 등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되지만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무보수 봉사직이다. 임기는 3년이다.

읍·면·동 복지협위원회체 운영은 지난 10월 17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기부와 나눔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복지를 활성화시키고자 제정됐다.

강철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읍·면·동 복지위원회체 운영으로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 본격 추진

저소득층 150명 대상 자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부터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리본프로젝트는 보육이나 간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상담과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보육, 간병, 의료, 법률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일자리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4억580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 150명을 대상으로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성과에 따른 성과금과 실비 등을 지급할 예정

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시범실시된 후 7개 시·도에서 시행돼 왔으며, 2013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2011년 기준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취.창업률은 52.7%, 탈수급률은 15%로, 사업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비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만큼 사례관리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눔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부금일부 연금으로 주는 기부연금제 도입

보건복지부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배려를 강화하고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1월 28일까지 입법에 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공정성 등 나눔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나눔 실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나눔단체의 투명성 확보, 기부연금제도 도입, 나눔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될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50% 이내를 연금 형태로 정기로 지급하는 계획

기부 모델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일주일간 ‘나눔주간’을 정해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눔단체가 나눔을 집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눔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개선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인 ‘나눔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나눔 관련 정책개발과 제도의 연구·조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인력의 양성·교육, 기념사업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협의회체로 ‘나눔문화위원회’를 만들고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나눔 관련 계획·시책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우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사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로 3억원 이상을 받게 됐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사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 및 요양기관을 방문해 1대1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장기 입원자 실태조사, 수급자 대상 건강교육, 실무 태스크포스팀 운영, 연계기관과 워크숍 및 연찬회 개최 등이다.

제주도를 이를 통해 의료급

시설탐방

(62)벤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장애인들의 '작은 천국'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부설 벤엘(대표이사 임말시아)은 장애인 생활시설로 지난 2006년 3월 문을 열었다. 벤엘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해 주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작은 천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벤엘을 12월 21일 찾았다.

벤엘은 '하나님의 집'을 뜻한다. 성경에 의하면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고서 재단을 쌓은 곳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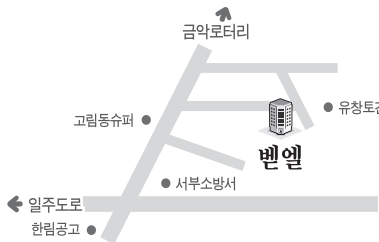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선도원이 운영하는 벤엘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에 위치해 있다. 한적한 중산간 마을에 동지들 틈이 곳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소외된 이웃을 보살핀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시설이다.

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축제 같은 삶을 영위하는 작은 천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 아래 설립됐다. 현재 이 곳에는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50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 중 중증 장애인은 없으나 그래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입소 대상은 만 8세 이상부터 64세 이하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비수급 장애인 중 실비 입소를 희망하는 지적·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벤엘에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초재활 및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개별 서비스 ▲직업재활 훈련 ▲원예 웰빙 테라피 ▲의료재활 등이 있다.

우선 입소자들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양치,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돕고 장



선도원이 운영하는 지적·발달장애인 생활시설 교육·직업·의료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들의 기초체력과 신체기능 강화를 위해 오름 등반, 숲길 산책, 음악 치료, 율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교육을 비롯해 요리학습, 사물놀이, 동화구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다.

직업재활 훈련도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제과제빵 만들기, 홈패션 배우기, 석부작 및 목부작 만들기 등이 그것이다.

입소자들이 만든 석부작이나 화분 등의 작품은 바자회 행사 등을 통해 판매되며, 그 수익금은 입소자들을 위해 쓰인다.

이와 함께 원예 치료와 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

로써 장애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 곳에서 생활하는 입소자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도움이 손길만 받는 것은 아니다. 지역 내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청소도 하고 어르신들의 팔,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노래도 부르며 흥을 돋우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벤엘 고종권 사회재활교사는 "입소자들의 한 끼당 식비 보조금이 1400원일 정도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서둘러 현실적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도원은 벤엘을 비롯해 어린이 집과 여성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마라의 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796-6086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2급까지 확대

지금까지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자격이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제주시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 생활 및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2013년부터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한다고 12월 26일 밝혔다.

또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 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가족 구성원 등 수급 가구의 생활 환경을 반영한 추가 급여의 경우 종전 최종증 1

인 가구만 지급한 추가 급여(월 80시간)를 가족 구성원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으로 구성된 최종증 수급자도 동일 수준으로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없을 경우에도 추가 급여 월 20시간을 지급한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도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인상되며 원거리 교통비 지급 대상 지역도 종전 도서지역에서 읍·면 지역까지 확대된다. 금액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회귀난치성질환보장 범위 늘어

의료급여 수급자가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회귀난치성 질환의 범위가 확대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회귀난치성 질환이 암과 백혈병 등 107개 질환에서 다제내성결핵과 클라인펠터 증후군, 골화석증 등 37개 질환이 추가된 144개로 확대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 1, 2종으로 구분된다.

회귀난치성 질환자와 그 가구원, 근로 무능력자를 포함한 1종 수급자는 입원 진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지만 2종 수급자가 회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외래, 약제비, 입원 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한편 제주시지역 의료급여 수급권 1종 대상자는 9692명, 2종 대상자는 6182명이며, 회귀난치성 질환자는 745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회귀난치성질환 범위가 확대되면 생활이 어려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층에만 설치 제한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13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한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이전까지는 공동주

택에 층수에 제한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층으로 제한된다.

이는 거동이 곤란한 입소노인이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소한 엘리베이터로 인해 이동 편의 및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개선규정'이 기존 설치 신고한 7450개 기관(전체 방문요양기관의 75%)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송년 한마당 잔치 개최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6일 '2012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송년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족구 등 미니올림픽이 열려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국내 최고령 연극단 공연 '감동의 물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실버스타연극단 순회 공연
평균 80세...어르신들 열연에 관객들 '박수갈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의 연기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연극을 보고 이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이에요.”

국내 최고령 연극단의 공연을 감상한 이들은 나이도 잇은 채 무대에서 열연을 펼치는 어르신들의 연기에 이구동성으로 감탄사를 쏟아냈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 '실버스타 연극단'이 그 주인공이다.

구좌읍지역 노인들로 구성된 연극단 단원들의 평균 나이는 80세. 우리나라 최고령 연극단이다.

지난해 창단한 실버스타 연극단은 2012년 2년차를 맞아 11~12월 두달 간 경로당과 복지관, 제주대학교

병원, 문예회관 소극장 등을 순회하며 그동안 갖고 닦은 연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객석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공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연극단 단원들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차례 모여 연기 연습에 몰두했다.

연습 초기에는 대본을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손짓과 발짓도 영 어색하기만 했다. 대사를 외우는 데 평균 1개월 이상 걸렸고, 표정 연기와 동선을 익히기까지는 무려 8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피땀 어린 노력 끝에 11월 첫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후 지역 내 경로당과 복지관, 문예회관 소극장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실버스타연극단 단원들이 공연 무대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다.

등지에서 감동의 공연을 펼쳤다. 매 공연 때마다 객석은 눈물바다로 변했다.

그리고 12월 17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초청해 한해의 마지막인 피날레 공연을 장식했다.

공연 제목은 '못잊어'로

자매의 애절한 사랑과 함께 슬픈 가족사에 대한 내용이다.

홍주일 관장은 “연극단원들이 열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성지요양원, 부재자 투표 참여



성지요양원(원장 송창권)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에 참여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10여명의 어르신들은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제주장애인요양원

해피 크리스마스 행사

제주장애인요양원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요양원 이용자와 직원들이 함께하는 해피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용자와 직원이 한 팀을 이뤄 숨은 재능과 끼를 뽐내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밴드 동아리 '미리내'가 출연해 특별공연을 선보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요양원 직원들은 마지막 순서로 마음을 담은 동영상 편지와 선물 증정을 통해 그동안 이용자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감동을 선사했다.

낮은울타리 어린이집
함께 나눠 행복한 산타

사회복지법인 낮은울타리 어린이집은 12월 21일 어린이집 원생과 가족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나눠 행복한 산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물조물 작품 전시회, 레크리에이션, 난타 공연, 동극,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 바자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은 어린이집 원생 중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부복지관, 경로당 난방유 지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겨울철을 맞아 한림읍 관내 경로당에 난방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림읍에 사는 양용만씨(우리농장 대표)의 지정기탁 후원으로 한림읍 관내 21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5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지원하고 있다.

소/식/마/당

창암재활원 봉사단과 크리스마스 파티



제주시 종합민원실 스마일봉사단(단장 고정렬)은 12월 22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안리에 위치한 창암재활원을 찾아 장애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창암재활원은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실버학예회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임수경)는 12월 8일 제주시 애월체육관에서 관내 6개 지역 경로당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건강지킴이 2-실버학예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문화교실을 통해 배운 춤과 민요, 가요 등을 선보였다.

아리복지관, 사랑의김장김치



아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12월 13일 KTCS제주지역사업단(단장 이안식)의 후원을 받아 '2012 사랑의 김장김치' 행사를 실시했다.

아리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연합회(회장 하순희)가 주관한 이날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김치는 저소득가정 150가구에 전달됐다.

애덕의 집, 대선 투표권 행사



제주 애덕의 집 이용자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 제주시 화북동 화남경로당에 마련된 제2투표소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했다.

애덕의 집 이용자들은 그동안 TV와 선거 홍보물을 통해 어느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투표 연습도 해 왔다.

제주도장애인부모회,사업보고대회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는 12월 17일 그랜드호텔에서 '사업보고대회 및 가족한마당'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부모회의 연간 사업보고 및 감사패 전달, 우수 돌봄미 및 자원봉사자 표창 수여, 양육수기 및 돌봄수기 발표 등이 진행됐다.

정혜재활원, 개원 7주년 기념식 개최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11월 29일 재활원 3층 재활활동실에서 개원 7주년 기념식을 겸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따뜻한 마음 함께하기’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 표창 수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지역주민 소통의 장 ‘휴마루’ 문 열어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카페 오픈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월 8일 복지관 내에 카페 ‘휴마루’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휴마루’의 문을 열었다.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월 8일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단체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휴마루 오픈식을 가졌다.

복지관 내 170㎡ 규모로 조성된 휴마루는 평온하고 안락한 분위기에 50여개의

좌석과 컴퓨터, 신간도서 등을 갖췄다.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 3명의 직원과 복지관 교육훈련생 10여명이 한 조를 이뤄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예약을 받아 커피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관 교육훈련생들은 이날 찾아온 손님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응대에서부터 주문받기, 카페 안내 등 지금까지 몸소 배웠

던 교육을 실천으로 옮겼다.

이 카페는 지역주민들의 소통이 장이자 교육훈련생들의 3차 서비스교육훈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관은 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주)커피마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강사 파견을 통해 교육훈련생들을 대상으로 고객응대에서부터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복지관은 휴마루가 본격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서귀포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카페 무대공간을 활용해 문화공연과 발표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마루(실내놀이터), 잔디마루(골프연습장), 우리마루(다목적실)을 개방하고,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복지관 환경을 생태 숲으로 조성해 복지관을 찾는 이용자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카페 이용 관련 문의는 732-2352~4로 문의하면 된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11월 21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카툰 및 사진전시회, 157-1389(노인학대 신고전화) 인지도 조사, 홍보물품 배부 등이 이뤄졌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노인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카툰 및 사진전시회, 157-1389(노인학대 신고전화) 인지도 조사, 홍보물품 배부 등이 이뤄졌다.

장애성인 새옴터 평생학습축제 개최

제장북, 학습 결과물 전시·체험부스 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11월 29일 ‘배우는 보람, 나누는 기쁨, 커가는 희망’이란 주제로 ‘2012 장애성인 새옴터 평생학습축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는 사회참여 활동이 취약한 장애인에게 맞춤형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응력 및 성취감 향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진행해 온 새옴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결과물 전시,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위탁아동 자립지원협의회 구성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12월 1일 위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을 위촉했다.

자립지원협의회는 위탁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 자원 확보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립지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사업 자문과 재능 기부, 후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멘토 언니·오빠와 함께하는 겨울캠프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반디’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은 12월 22~23일 1박 2일간 재가아동을 대상으로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빌레리조트에서 멘토 언니·오빠와 함께하는 재가아동 학습·정서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반디’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썰매 및

스케이트 타기, 테지움 사과리 관람, 레크리에이션, 크리스마스 케익만들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 사진콘테스트를 열어 봉사자와 아동들이 캠프기간 동안 의미 있는 사진을 직접 찍어 스마트폰으로 보낸 뒤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창암교육활동센터 미술전시회 열어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는 12월 12일 제주시청 어울림홀에서 중증장애인들이 통합미술치료를 통해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함께하는 이웃사’



이더 아트 전시회를 열었다.

통합미술치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그림을 보완해

주거나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과제수행의 성취감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암교육활동센터는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이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2월식품 기탁자

▲(사)대한미용사회 제주지회=라면 2,000개 ▲강경찬=감귤 760kg ▲호남새마을금고 공동모금회지정기탁=쌀 500kg ▲금강축산유통=육류 283.1kg ▲김치원=김치30kg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여행안내사협회=생필품 등 250만원 상당 물품 ▲빵따아모=빵 28봉 ▲삼다유통=삼다수(2Lx6입) 300팩 ▲서문식품=두부 336모 ▲아산재단=쌀 200kg ▲이든이네=건어물 4.5kg ▲이수종합건설&하나주택=쌀 300kg ▲이어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 채소 70kg ▲제주문화예술회재단=교통카드 등 440만원 상당 물품 ▲제주보리촌=보리빵 77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500mlx20입) 150팩 ▲제주해양경찰서=쌀 58.5kg ▲파리마켓동광초점=빵 106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제주사랑상품권 692만원 ▲KT제주고객본부=성금 300만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성금 50만원 ▲삼다라이온스클럽=성금 1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성금 1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2012년 1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900,000	90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495,000	375,000
복지사업후원	1,000,000	1,368,150
푸드마켓후원	5,973,000	40,0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칼럼

새해 덕담과 삼사일언의 다짐

(德談)

(三思一言)



김 범 훈

前 제주일보 논설실장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다정한 인사를 나눕니다. 이른바 덕담(德談)의 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덕담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비는 말입니다.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일종의 언령적(言靈的) 심리가 짙게 배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나눠주고 싶은 새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쩌면 한번도 만난 적 없는 누구에게조차 포근한 소망을 나눠주고 싶은 새날입니다.

특히,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 호(號)는 세계사적 격동기의 한복판

에 서 있습니다. 때문에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과반 지지의 제18대 대통령이란 영광스런 자리에 우뚝 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큼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는 이념, 세대, 빈부, 지역으로 쪼개진 한국사회 한테도 “새 대통령부터 국민을 진정으로 끌어안는 사회, 이로써 소통하는 사회, 그럼으로써 국민행복사대로 나아가는 사회”라는 덕담을 하늘 높이 날려보고 싶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스스로에게 건네고 싶은 새해 덕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사일언(三思一言)의 다짐입니다. 삼사일언은 ‘세 번을 신중히 생각하고, 한번 조심히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사에 세 번을 생각한 뒤 한번 신중히 말해도 그 잘잘못은 적지 않다는 데서 비롯된 경구(警句)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지껄이지 말며, 붙어있는 게 입이라고 기분 내키는 대로 나뉘대지 말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돌아보면 지난 2012년은 말의 난장(亂場)으로 회한(悔恨)에 가득찬 한 해였음을 고해합니다. 제대로 사정을 알

아보지도 않고 그저 화가 난다고, 듣기에도 거북한 공격적인 언어를 내뿜으면서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아름다운 날로 소통하는 한해

예로부터 ‘병종구입(病從口入), 화종구출(禍從口出)’이라고 했습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옛 성현들은 ‘먹고’ ‘말하는’ 입의 두 가지 기능 가운데, 특히 ‘말하는’ 기능에 각별히 주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수롭지 않게 지껄인 말들이 돌아킬 수 없는 설화(舌禍)를 만들어내고 큰 재앙까지 불러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릇 사람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이요, 마음의 초상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행복한 사회는 우선 말부터 깨끗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시대 우리사회에 말의 순화가 더 없이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아름다운 말로 소통하면서 내내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론

제주사회의 비전이 누구에게나 보편적 향유권을 보장하는 건강한 사회이기를

한 10년 전의 일이다. 일본계 스웨덴인으로 중증장애여성인 ‘이시가와 루우미’ 씨가 장애인자립생활 강연차 제주를 찾은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스웨덴사회에서 현재 장애인계 이슈(이슈)는 무엇인지 질문한 적이 있다. 이시가와씨는 곰곰이 생각해보다니

“코뮌(기초자치단체)에서 요트를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 그런데 요트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미비하다. 바다를 좋아하는 자신은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를 비롯해 참석한 중증장애인들이 멍하니 웃기만 했다.

바다 건너 남의 일이다. 서울시가 ‘장애인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원도 양양군의 하조대 해수욕장 인근에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양군의 반대로 법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왜 브레이크가 걸렸을까. 법령상 숙박시설은 가능하고 노유자 시설(복지시설)은 설치가 안 된다는데 양양군은 노유자 시설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는 모양이다. 장애인들이 해수욕장에 출입하게 되면 일반피서객들이 이용을 꺼릴 것이라는 주민들의 집단적 항의를 양양군이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1,2심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고 양양군의 상고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아 있다.

장애인에게 여전히 불편한 관광제주

장애인복지 현장에 있다 보면 제주를 찾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한다. 제주를 찾는 장애인들, 특히 전통휠체어와 같은 크기와 무게의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이 차량과 숙박시설의 이용이다. 이들에겐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은 필수이고 숙박시설의 턱은 최대한 없어야 하며 화장실은 무장애공간이어야 한다. 이들이 한사람도 아니고 일행이 되어 집단적으로 제주를 찾는다면 이를 만족하는 교통수단과 숙박시설은 제주에 존재할까. 관광객 일천만 중 소수인 이들에게 한라산과 오름, 올레길과 쪽빛바다, 제주의 도심길 모두 온전히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다면 나는 ‘글쎄다’이다.

“박원순 시장이 제주의 협덕바당이나 협재해수욕장 인근에 숙박시설을 추진했다면 제주도민들은 이를 용인했을까, 설령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행정은 양양군과 같은 반응을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제주사회의 비전은 무엇일까. 제주도는 사람·자본·상품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완성되면 잘산다고 이를 비전이라고 한다. 거대 토목공사와 대형건물 짓는 소리가 요란해야 발전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잘살아진다고 치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바다체험을 원하면 비싼 요트를 끼게이 무상임대해주는 제주사회가 되는 것인가. 이 역시 ‘글쎄다’이다. 나에게 제주사회의 비전을 희망한다면 ‘누구에게도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보편적 향유권을 보장하는 건강한 사회’라고 하겠다. 쪽빛 제주바다와 올레, 제주의 길거리가 온전히 장애인들의 접근을 환영하는 사회, 공동선(善)이 생생한 인간중심의 사회가 제주의 비전이 되기를 희망한다. 오늘도 제주에 환상을 갖고 오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박원순 시장이 ‘장애인행복프로젝트’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성공했으면 좋겠다.

기고

노년기의 삶과 운동



전 석 봉

제주시동부보건소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인구 대비 고령자(65세 이상)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20%인 사회를 초고령화사회, 21%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현재 우리사회의 고령자는 전체인구의 11.8%로 2018년경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인간의 생리적 기능은 30세까지는 거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지만 그 이후에는 신체 활동이 적을 경우 해마다 0.75~1%씩 감소하게 된다.

이런 생리적인 기능을 체력이라 할 수 있으며 체력은 환경, 연령,

생활습관, 신체 활동 등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에 의한 신체적 변화에 의해 체력도 함께 감소된다.

그러나 노화로 인한 노인들의 체력 저하는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신체 활동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이 감소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체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년기 운동의 목적은 지구력의 향상, 신체 가동 범위와 유연성 개선 그리고 근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심장 운동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큰 근육 군이 동원되는 반복적이고 동적 지구성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지구성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걷기, 조깅, 등산, 계단 오르기, 수영 등이 적합하며, 유연성 증진과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깨 및 고관절 부위의 회전운동과 같은 큰 근육이

사용되는 운동이 적절하며 여기에는 맨손 체조, 수영, 스트레칭 동작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또한 걸으면서 실시하는 가벼운 팔 다리 동작은 유연성을 개선시키고 근력과 근 질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골다공증 또는 골연화증에 예방적, 치료적 효과가 있다.

앞으로 노년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혼자 자기 일을 챙기며 살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지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하고 레저생활도 그럴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안정적인 노년기의 삶을 위해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복지정책과 더불어 각자 개인의 건강상태를 바로알고, 금연, 절주, 생활습관, 운동습관 등 건강행태 개선이 있어야 하며, 노인을 수급자입장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공급자로 바라보는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신체활동, 금연, 절주 및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 영양교육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어려워도 자립하고픈 장애인... “정부 지원체계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18일 서울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시설거주 장애인 62% “자립의사 있다”

주거·생활비·일자리 원해... “탈시설 전환 지원체계 마련해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절반 이상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립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18일 서울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책방안들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인권위는 “국가차원에서 시설 생활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자립생활 서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지난 8월 27일~10월 22일까지 약 두달간 전국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속하는 총 1144개소(장애인생활시설 452개소·단기보호시설 103개소·공동생활가정 589개소)에서 지역과 장애유

형을 고려해 무작위 선정한 760명(거주시설 601명, 공동생활가정 98명, 단기보호시설 31명, 입소대기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조사대상 중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62.14%가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립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24시간 활동보조가 지원되지 않고,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한 후 자립의사에서 53.42%가 자립하겠다고 답했다.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주거와 생활비, 일자리 순으로 많은 답을 했다.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거주시설 장애인 중 31.48%는 ‘나가서 살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가 22.46%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일 자리를 구해줘야 한다’ 13.05%,

‘활동보조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12.28%, ‘시설에서 나가고 싶을 때 상담하고 지원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2.88%,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 2.30%, ‘시설에서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외출과 개인적인 금전 관리 등이 보장돼야 한다’ 2.11% 등 답변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전국 시설거주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것으로 집, 생활비, 일자리, 활동보조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다른 지자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며 “특히 이 중 1순위는 전국조사나 지자체 조사 모두 ‘집’으로 나타나 무엇보다 시설 이외에서 살 곳을 제공하는 것이 시설거주인 자립에 있어 핵심과 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몇가지 눈여겨 볼 만한 결과도 도출됐다. 단기거주시설 장애인을 대

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월 이용일 수를 살펴보면 ‘30일 미만’인 경우가 7.4%, ‘30일 이상’인 경우가 92.6%로 나타난 것.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욕구가 높아지는 데 대한 정부차원의 탈시설 전환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교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통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음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기본적인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화를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맞춘 개별적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실시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대규모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고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니 탈시설 전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중앙단위의 지원체계로 ‘탈시설전환기관’을 제안했다.

탈시설전환센터는 중앙단위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탈시설전환팀을 설치

하고 시·도 단위에 센터를 설립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탈시설전환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은 물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설치와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는 중앙정부의 탈시설전환기관 설립에 대한 현실성 부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이미 장애계가 10년 가까이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재가장애인 대상 장애인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현실을 평가하며 “심지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역별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시설전환서비스도 하나의 장애인서비스로 보고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에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간의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웰페어뉴스(www.welfarenews.net) 제공〉



연중기획

'이웃사랑 자원봉사'

▶ (11) 변명효 한울간병봉사회장

“힘이 닿는 한 봉사활동에 계속 매진할 터”

제3회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에 선정

10년 넘게 봉사회 이끌며 4800여시간 봉사 귀감

“소외받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이 닿는 한 봉사활동에 계속 전념하겠습니다.”

내가 아닌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낸 세월만 꼬박 10여년.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 시간만 무려 4813시간에 달한다.

한울간병봉사회 변명효 회장(55·여), 사실 그에게 자원봉사 실적은 큰 의미가 없다. 산술적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과 보람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변 회장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제3회 사회복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에 선정됐다.

한울간병봉사회는 지난 2000년 5월 창단한 베테랑 봉사단체다. 변 회장은 제주의료원에서 간병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과 의기투합해 봉사회를 꾸렸다.

변 회장은 봉사회 창단 주역답게 솔선수범 봉사에 앞장섰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나들이를 도와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등 갖가지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가족도 아닌 생면부지의 환자를 돌본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힘든 내색조차 없이 묵묵히 봉사활동에 전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봉사회 회원들이 늘어나자 활동영역을 넓혔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과 봉사 협약을 체결, 2005년

3월 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민속시장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바깥사람들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민속시장 곳곳을 누비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이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변 회장은 비롯한 봉사회 회원들은 2007년 6월부터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을 위한 밑반찬 배달 봉사에도 뛰어들었다.

스스로 조리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밑반찬을 매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 아버이날이면 가족과 사



▲변명효씨



▲한울간병봉사회 변명효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독거노인가구를 방문해 카네이션과 케이크를 전달하는 모습.

회로부터 소외되거나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10가구를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소외계층을 돌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로원, 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등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식사, 목욕, 이마용, 세탁, 간병 등 봉사활동을 펼쳐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사실 변 회장은 봉사회 창단 이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회

장직을 맡고 있다. 이제는 회장직도 내려놓고 싶지만 그가 봉사에만 '몰인'해 온 데다 워낙 리더십이 뛰어난 탓에 다른 회원들이 업무를 못내는 것이다.

변 회장은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회원들에게 항상 고마울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식품을 이웃과 함께'

▶ (7)은정 답지

연말 맞아 푸드마켓에 온정의 손길 잇따라

각계각층에서 어려운 이웃 위해 물품·성금 등 기탁

나눔 동참 행렬...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큰 힘

연말을 맞아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온정의 손길이 잇따라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은 식품·제조·유통업체 등 기업체와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이나 물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상설 매장이다.

(주)하니주택 및 (주)이수종합건설은 12월 4일 푸드마켓을 찾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300kg을 기탁했다.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이복자)는 12월 5일 제주시상록회관 1층 탐라웨딩홀에서 열린 송년의 밤 행사에서 라면 100만원 상당을 푸드마켓에 기부했다.

KT제주고객본부(본부장 정준수)도 12월 6일 푸드마켓을 방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써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복지여성국(국장 강승수)은 12월 10일 푸드마켓에 69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기탁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준억)도 12월 11일 푸드마켓을 찾아 쌀 58kg을 기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국내여행안내사협회(회장 강미선)도 이날 푸드마켓에 치약, 세제 등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

제주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12월 18일 푸드마켓을 방문해 성금 50만원을, 삼다라이온스클럽(회장 안성)은 12월 22일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클럽 20주년 기념식에서 푸드

마켓에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제주문화예술회관(이사장 양영호)도 12월 24일 교통카드, 타올, 수첩 등 440만원 상당의 물품을 푸드마켓에 기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이상순 원장은 12월 26일 푸드마켓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농촌지도 우수상 상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개인 후원자인 강경찬씨도 푸드마켓에 감귤 760kg을 기탁했다.

또한 금강축산유통을 비롯해 이든이네, 김치원, 삼다유통, 서문식품, 제주보리촌, 파리마켓 동광초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정기 기탁업체에서도 육류, 삼다수, 두부, 김치, 빵 등의 식품을 기탁했다.

이 밖에도 200명이 넘는 많은 후원자들이 푸드마켓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보내주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식품과 성금을 기탁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